

漁港消息

발행겸 편집인 孫井植
인쇄인 金在克

社團 韓國漁港協會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98

TEL. 544-0610
544-0611
FAX. 544-0611

月刊: 비매품

등록번호: 라3459

등록일: 1988년2월19일

會訓
● 誠實
● 奉仕
● 創意

漁港基盤
擴充으로
福祉漁村건설

'92年漁港건설預算 8百57億3千萬원計上



수산청은 내년도 어항건설예산으로 857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산청은 92년도 어항건설예산으로 올해 예산의 1백49% 수준인 8백57억3천4백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2種港 70億투자計劃

올해 예산의 149% 수준

'92어항건설예산요구액 (단위: 천원)

구분	'92요구(A)	'91예산(B)	증감	대비(A/B)%
합계	85,734,890	57,503,513	28,231,377	149
○ 주요사업	82,111,483	57,380,750	24,730,733	143
- 제1·3종어항	75,111,483	51,480,000	23,631,483	146
- 제2종어항	7,000,000	5,900,750	1,099,250	119
○ 어항사무소 및 기타사업	3,623,407	122,763	3,500,644	
- 어항사무소(신축, 관리)	3,435,190	31,441		
- 기타사업	188,217	91,322		

利用실태 點檢

1·3種港 無斷占有等 실태 피기로

수산청은 어항이용의 효율화와 국유재산의 적정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수산청 지정 제1·3종 어항시설의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수산청에 따르면 이용 유상화, 어항시설훼손 및

유상화 52개항중 27개항은 6월15일까지, 25개항은 10월30일까지 1, 2차로 나누어 현지 전수조사 실시, 어항시설의 사용정여부 및 무단점유상화, 어항시설훼손 및

장해발생차상태를 점검한다. 이에 따라 수산청은 어항시설의 복구와 정화사업 실시, 어항시설의 유지관리를 물론 이용유상화 방안의 검토도 할 계획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10월5일 편성한 90년 예산 6개월간 시행한 결과 수산청과 제1·3종 어항 20개항(43필지) 3루 및 국유재산으로 등기

수산청이 지난해까지 수출입료면 발급제, 물양장 부지 등 어항 시설물 중 수산청관리 제1·3종 어항 20개항(43필지) 3루 및 국유재산으로 등기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있다. 수산청은 지적측량과

새設施 地籍측량

수산청이 지난해까지 수출입료면 발급제, 물양장 부지 등 어항 시설물 중 수산청관리 제1·3종 어항 20개항(43필지) 3루 및 국유재산으로 등기

漁港人位相적상에 보람

試鍊을 跳躍의 契機로

정유하기 위하여, 어항건설과 관련하여,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어항건설을 통해 어항인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높여주고 있다. 어항건설을 통해 어항인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높여주고 있다.

會長 孫井植



'漁港協' 창립4周年을 맞이하여

나아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다채로운 사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항인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높여주고 있다. 어항건설을 통해 어항인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높여주고 있다.

어항건설을 통해 어항인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높여주고 있다. 어항건설을 통해 어항인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높여주고 있다.

어항건설을 통해 어항인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높여주고 있다. 어항건설을 통해 어항인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높여주고 있다.

어항건설을 통해 어항인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높여주고 있다. 어항건설을 통해 어항인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높여주고 있다.

어항건설을 통해 어항인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높여주고 있다. 어항건설을 통해 어항인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높여주고 있다.

어항건설을 통해 어항인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높여주고 있다. 어항건설을 통해 어항인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높여주고 있다.

어항건설을 통해 어항인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높여주고 있다. 어항건설을 통해 어항인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높여주고 있다.

漁港行政강화로 새役割도 分擔 協會중심집합어그때보다 切實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어항건설을 통해 어항인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높여주고 있다. 어항건설을 통해 어항인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높여주고 있다.

어항건설을 통해 어항인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높여주고 있다. 어항건설을 통해 어항인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높여주고 있다.

어항건설을 통해 어항인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높여주고 있다. 어항건설을 통해 어항인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높여주고 있다.

어항건설을 통해 어항인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높여주고 있다. 어항건설을 통해 어항인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높여주고 있다.

漁港중심 漁村綜合開發시금

청와대投資企劃團 計劃대상에 포함을

朴星快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산경제실장)

신을 갖지 못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경제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도로, 항만, 배후요 사회간접자본의 축적이 거

다. 우리의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전반적 불균형발전 문제는 기본적으로 관행있는 사회간접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그 주된 원인이 있다고

다. 이 사업은 정부투자기업인 대한수산업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정부투자기업인 대한수산업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업은 정부투자기업인 대한수산업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정부투자기업인 대한수산업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착수했던 30년전, 우리나라는 급이 오늘날과 같은 경제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더라면

상당한 정도로 이룩할 수 있도 못했었다. 그러나 제7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는

후생시설과 같은 시설이 정비확충되어야 하며, 정주여건의 선진화를 위한 주택, 문화, 편의시설 등의 대한 정비확충을 더욱 크게 실천하고 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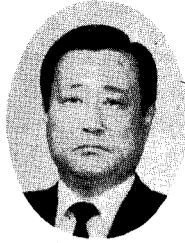
다. 이 사업은 정부투자기업인 대한수산업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정부투자기업인 대한수산업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정부투자기업인 대한수산업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정부투자기업인 대한수산업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정부투자기업인 대한수산업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정부투자기업인 대한수산업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정부투자기업인 대한수산업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정부투자기업인 대한수산업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尹沃榮 수산청장



▲수출진흥사업 5월 17일 부산수산물교역사 수출진흥사업 5월 17일 부산수산물교역사 수출진흥사업 5월 17일 부산수산물교역사

▲수출진흥사업 5월 17일 부산수산물교역사 수출진흥사업 5월 17일 부산수산물교역사 수출진흥사업 5월 17일 부산수산물교역사

▲수출진흥사업 5월 17일 부산수산물교역사 수출진흥사업 5월 17일 부산수산물교역사 수출진흥사업 5월 17일 부산수산물교역사

▲수출진흥사업 5월 17일 부산수산물교역사 수출진흥사업 5월 17일 부산수산물교역사 수출진흥사업 5월 17일 부산수산물교역사

▲수출진흥사업 5월 17일 부산수산물교역사 수출진흥사업 5월 17일 부산수산물교역사 수출진흥사업 5월 17일 부산수산물교역사

▲수출진흥사업 5월 17일 부산수산물교역사 수출진흥사업 5월 17일 부산수산물교역사 수출진흥사업 5월 17일 부산수산물교역사

▲수출진흥사업 5월 17일 부산수산물교역사 수출진흥사업 5월 17일 부산수산물교역사 수출진흥사업 5월 17일 부산수산물교역사

▲수출진흥사업 5월 17일 부산수산물교역사 수출진흥사업 5월 17일 부산수산물교역사 수출진흥사업 5월 17일 부산수산물교역사

▲수출진흥사업 5월 17일 부산수산물교역사 수출진흥사업 5월 17일 부산수산물교역사 수출진흥사업 5월 17일 부산수산물교역사

漁港法改正 서둘러야

劣惡한 어촌環境 漁港나후가原因

漁港중심 漁村綜合開發시금

청와대投資企劃團 計劃대상에 포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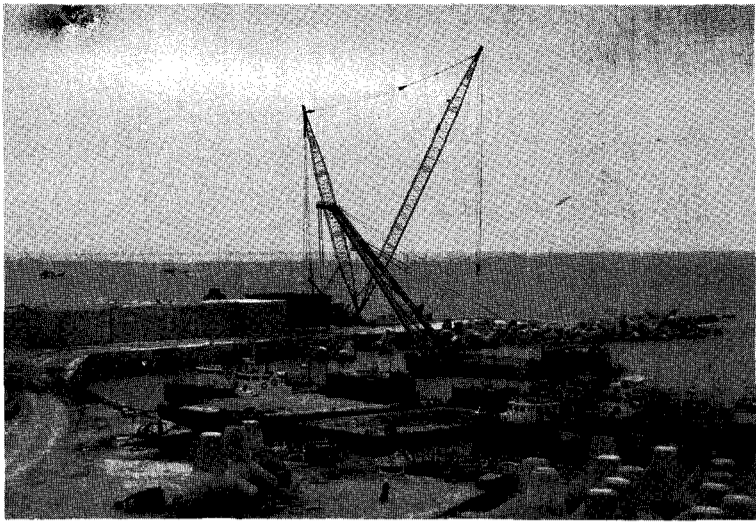
建設需要의 제 建設需要의 제 建設需要의 제

建設需要의 제 建設需要의 제 建設需要의 제

建設需要의 제 建設需要의 제 建設需要의 제

港灣개발에 民間資本적극誘致

施設 업체에 財産權 부여



關係法令 개정 6月부터施行

우리나라 항만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은 항만시설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분리하여, 시설물의 소유권은 민간기업에 부여하고, 관리권은 항만청에 부여하는 방식이다.

港灣진체

96년까지 解消 4兆9百56億원 投入키로

정부는 항만시설부족에 따른 항만정체현상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96년까지 완전해소키로 했다. 또 북방항만개발사업의 다각화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항만개발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북방항만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정하고 오는 96년까지 4조 9백 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이 예산은 항만개발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항만시설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분리하여, 시설물의 소유권은 민간기업에 부여하고, 관리권은 항만청에 부여하는 방식이다.

항만개발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항만시설부족에 따른 항만정체현상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96년까지 완전해소키로 했다. 또 북방항만개발사업의 다각화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항만개발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항만개발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항만시설부족에 따른 항만정체현상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96년까지 완전해소키로 했다. 또 북방항만개발사업의 다각화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항만개발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항만개발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항만시설부족에 따른 항만정체현상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96년까지 완전해소키로 했다. 또 북방항만개발사업의 다각화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항만개발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for 'GUMA' (GUMMA) chemical products. Text includes '염료산업의 선구자 금아화학은', '섬유용, 제지용, 피혁용으로부터 잉크, 목재, 농약 등 폭넓은 분야에까지 염료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and a list of products like '직접염료', '산성염료', etc.

Large advertisement for '漁港會館 建立基金을 募金합니다' (Recruiting funds for the construction of the Fishing Port Association). It includes details about the fu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韓國漁港協會' (Korea Fishing Port Association), and a list of branch locations like '수협논현동지점' and '주택은행안주로지점'.

Advertisement for '金亞化學工業社 洋行' (Guma Chemical Industry Co., Ltd. Foreign Branch). It features the company logo, name in large character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本社: Tel. (02) 672-2374', '서울工場: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100번지, Tel. (02) 633-2309', etc.

어·항·교·실 漁港計劃樹立의要領

[24]

臨港道路

1. 개설
어항관계사업에서는 <그림 1>에서 표기하는 임항도로, 어항관련도(道), 촌락도(村落道)의 정비가 가능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어항관련도를 포함한 것을 임항도로 생각하며 그 배치와 규모 등의 결정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표 1>에서는 도로의 종류와 그 주된 기능을 표시했다.

임항도로는 어항을 기능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그 배치, 도로폭의 결정여부에 의하여 어항의 이용효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반도로와 어항의 임항도로가 기능상 크게 다른 점은 일반도로는 단지 사람과 화물의 교통 또는 수송을 주체로 한 신속한 통과기능이 요구되고 있으나 어항의 임항도로는 어항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면 큰 공장에서의 구내도로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 주행속도는 그다지 요구되지 않으나 어획물 및 어업용

자재등을 어항구역안으로 반입·반출 또는 어항구역내에서의 원활한 이동과 그에 부수하는 작업의 편의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또 일반도로와 특히 다른 점은 극히 짧은 시간내에 다종다양한 차량이 어항구역내의 일정지점에 집중했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수가 현저히 감소되는 것이다.

따라서 임항도로의 계획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도로폭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와같이 어항의 임항도로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기능이 요구되는데 그 기능으로 보아 다음 세가지로 분류하여 도로폭등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어항과 그 배후도로를 연결하는 주요 임항도로 ②하역장배후의 도로 ③어항내 각시설을 연결하는 도로

2. 임항도로 계획의 순서
전술한 ①~③의 어떤 경우에도 발생하는 교통량이 다른 어항기능에 좋지않은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도로의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임항도로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그림 2>의 흐름도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양륙량이 비교적 적어 발생교통량도 적은 어항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방법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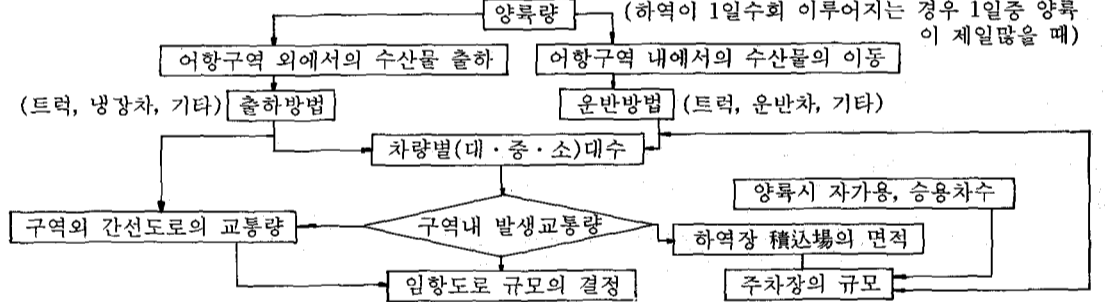


<그림 1> 어항관련도로

<표 1> 어항관련도로

도로의 종류	주된 기능
임항도로	어항시설간의 연락 및 간선도로와의 연결
어항관련도	어항과 배후 주요도로와의 연결
촌락도	어항과 배후 부락과의 연결

<그림 2> 어항도로 계획의 순서



계는 갑각류의 십각목(十脚目)의 속하는 단미류(短尾類)로서 절두동물(節頭動物) 중의 하나이다. 몸이 나뭇잎과 닮았으며 공기중(陸地)에 나와서도 잘 움직인다. 우리의 가까운 수산동물이다.

또한 수달속이나 비유속에 자주 등장하는 예를 들면 평소에는 잘하다가 잔혹 사교를 치르거나 또는 정상태도를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게 절름걸음이라고 하며 입에 거품물고 다니다 안한 연인을 입에 거품물고 떠난다. 또는 혹은 좁은 실의 소유자를 게코리만들 안다. 나는 등 우리 주변의 연인과 풍습에 그 만큼 밀접하게 느껴지지만 게의 집게다리에 들렸을 때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는 그 고통을 다리를 잘라내어도 한번 문집게는 그대로 있으니 말이

게

발육기 어린이에게 좋아 부패 빠르고 알에는 독성

게의 전룡(前龍)은 게구이, 게장, 게찜, 게찐, 게회, 게국, 게살튀김 그리고 근래에는 게맛살도 등장하고 있다. (한방(漢方)에서는 게를 해(蟹), 다른 이름으로는 과쇄(郭索), 횡행개사(橫行介士), 무장공자(無腸公子) 등으로 부르며 일반적으로 게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시원하고 산뜻한 독특한 맛을 내며 필수아미노산이 많기 때문에 발육기의 어린이들이나 허약한 노인성질병의 회복기에 그 효과가 높고 이는 식품이다. 특히 비만증, 고혈압, 간장병 등에는 치료목적으로 많이 쓰이는 종류이며 그 효과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방의서에는 다른 어떤 수산물보다도 세밀하게 다른 종류가 보이는데 「신료본초」라

는 책에서는 모든 내열(內熱)을 산해(散解)하고, 위의 기능을 조절하고, 경맥을 순조롭게 해주며, 음식을 소화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했으며, 본초강목(本草綱目)에는 산후의 위경련(本草綱目)에는 산후의 위경련과 혈(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을 다스려주며, 일화본초(日華本초)에서도 근골(筋骨)이 절상(折傷)한 것에 생계를 짓는다고 하였다. 또한 활달(活潑)한 기운을 돋우며, 장복하면 치료가 빨라진다고 기록되어 있다.

특히 우리가 주의하여야 할 것은 게의 알에는 일종의 독이

우리 국민은 위대했다. 일제 36년의 식민지 압제에 시달렸고 다시 분단과 6.25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일어나야 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저 사회주의의 중주국 소련의 지도자들이 기적이라고 찬사를 할만큼 경제적 성장을 이룩했다.

오늘 한강의 기적이다 서울의 기적이라고 세계가 입을 모아서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높이 평가하게 된 것은 우리 4천만 국민이 허뿔뿔 줄라매고 땀흘려 일한 결과인 것이다.

참으로 부지런히 일했고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국민들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우리 국민들 사이에 '울창이적 생각'을 까맣게 잊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만큼 어렵게 일했고 고생스럽게 살았으니 남보다 더 잘입고 잘먹어야겠다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아직 5천불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소비수준은 2만불의 소득을 가진 나라의 국민보다도 높으니 크게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 새秩序 · 새生活

국민의 도덕성 회복 아쉽다

오늘의 사회병리현상원인 어디에...

여기서 어려서 배운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를 머리에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토끼가 걸음이 빠르다고 잡자는 사이에 거북이가 앞서가듯 이 우리 경제가 흑자경제로 돌아섰다고 해서 흥청망청한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을 것이

눈을 돌리지 않는 풍조가 만연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마저 잃게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되려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겐 정당한 댓가가 주어지고 놀고 먹는 사람은 불이익이 돌아가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

물가가 안정된다고 걱정이었는데 또다시 석유파동이 예고되었으니 앞친데 뒷친격이 아닐 수 없었다.

나라의 살림이 이런데도 북경 아시안게임을 구경했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돌아왔는가, 중국의 한약재나 약품들을 너도 나도 싸쓸이 하는 바

명을 떨어뜨리고 나라까지 망신시키는 예가 된다.

한푼의 외화라도 아껴쓰고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면 사지 않겠다는 정신을 가졌더라면 그런 추한 꼴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외국에 나가서만 그렇겠는가. 집에서 새는 쪽박 밖에서 샌다는 말이 있듯이 나라안에서 사치와 퇴폐와 향락의 습성이 있기에 밖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가톨릭계의 일각에서 전개하고 있는 「내 탓이오 운동」이 말해 주듯이 오늘날의 사회병리현상은 정부에게만 그 책임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 도덕성 회복이나 과소비, 사치, 퇴폐의 문제 등은 법이나 통치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청소년 문제만 해도 임시나 교육제도, 사회환경의 책임을 묻기전에 부모들이 가정교육과 자녀들의 선도에 어떤 애정을 쏟아왔는가부터 반성해야 한다. 기성세대가 다음세대에게 수범이 되는 삶을 살지 않고서야 자녀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인성을 갖추길 바랄 수 있겠는가.

♣ 새秩序 · 새生活

『既成세대가 다음 世代에게 垂範보여야』

다. 나라야 망하든 말든 나하나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이겠지만 나하나가 열이되고 백이되면 결국 나도 못살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더구나 조금 벌어들였다고 해서 부동산 투기다 향락산업이다 해서 놀고 먹는 일에만 급급하고 일확천금이 아니면

되어야 한다. 불로소득이나 일확천금을 꿈꾸는데서 불법과 범죄가 일어나는 법이다.

근검절약의식결여

1배럴에 18달러하던 국제원유값이 쿠웨이트사태로 한때 40달러까지 치솟았다. 그러지 않아도 임금인상 등으로

람에 국제적 빈축거리가 되고 말았다.

가정에서 필요한 구입약이나 치료약이라면 그렇게 많이 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과소비 풍조와 외제선호, 사치 풍조가 불러일으킨 근검·절약의식의 결여에서 온 것이다. 나하나야 어떠랴 하는 순간의 잘못된 생각이 자신의